

전영애의 ‘여백서원에서’



매력적인 악(惡), 메피스토펠레스

괴테의 대작 ‘파우스트’에서 주인공 파우스트보다 더 매력적인 캐릭터는 사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인 것 같다. 파우스트는 열정적인 대학자이니 멋지고 엄숙한 구절이 그의 입에 담기는 거야 자연스럽기도 한데, 워다 보면 옴은 소리는 메피스토펠레스가 다 하는 것만 같다. 둘의 계약은, 이 생에서는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가 원하는 것은 — 파우스트가 만사 흡족하여 어느 순간을 향하여 “멈추어라, 너 참 아름답구나!” 할 때까지—다 들어주고 그 말이 나온 순간 그의 영혼은 메피스토펠레스의 것이 되며 그다음에는 파우스트에게 메피스토펠레스의 종살이를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악마가 왜 매력적일까?

지적인 인물이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밝은 별을 지상에서는 최고의 쾌락”을 다 바라다 천지 간의 허공을 가로세로 내닫는 파우스트와는 달리, 지극히 현실적이다. 계약을 한 후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에게 맨 처음 하는 봉사는 노학자에게 젊음을 되찾아주는 일이다. 마녀의 부엌에 가서 악을 먹임으로써 30년을 빼준다.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그 부엌에 닿았을 때 파우스트는 그런 데서 젊음을 얻는다는 것이 마뜩찮고 믿기지 않아, 뒤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묻는다. 메피스토펠레스가 있다가 설절하게 가르쳐 준다. 당장 들판에 나가 뎡이 들고 살 들고 땅을 일구며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살면 된다고. 그러나 평생 먹물로 책상 앞에만 앉아 있던 파우스트가 그런 일을 해낼 수는 없어 결국 마녀가

주는 악을 먹고 쉽게 젊어지는 방법을 택한다.

‘파우스트’ 2부는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재정위기에 빠진 중세 궁정에 등장하여, 제국 지하에 묻혀 있다는 가상의 보물을 담보로 지폐를 무한정 발행하여 재정 문제를 수습적계, 단박에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마지막 4,5막에 이르면 메피스토펠레스는 속도와 물량의 시대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인물로 등장해서 해안을 메우는 간척 사업을 벌이는 파우스트를 돕는다.

남녀노소가 모여사는 낙토를 만들려는 꿈에 쫓기는 파우스트와는 달리, 그는 욕망을 부추기고, 무자비한 개발을 가져 없이 자행한다. 성서의 세 용사 대신, ‘막 때려’, ‘다 뺏아’, ‘깍 쥐어’를 수하에 거느리고 말이다. 파우스트가 전망을 가리는, 선한 노부부의 오두막과 예배당을 눈에 거슬려 하면, 메피스토펠레스는 순식간에 썩다 불태워버린다. 욕망의 시대를 대변하는 말을 메피스토펠레스는 매끄럽게 늘어놓는다. 내가 “말 여섯 필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은 다 내 것 아니냐며, “미인도 복수 pl.로”, 즉 사람조차도 물량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딱히 나무랄 수도 없는 옴은 소리이기도 하다. 한없이 욕망에 추동 당하며 사는 현대인으로서 더더욱.

왜 악마를 이렇게 설정하였을까. “나 천사, 너 악마” 같은 2분 법적 세계관의 인물이 아니라 이 악은 우리 마음속의 부정적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메피스토

펠레스라는 이름부터 묘하다. 히브리어로 ‘파괴자’와 ‘거짓말쟁이’를 합성한 것이라고 한다. ‘악’의 이름이 ‘파괴자’라는 거야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 ‘거짓말쟁이’가 악의 절반 구성 성분이라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거짓말쟁이’라는 단어는 아이들 말갈이 들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고, 작은 유불리에 따라 얼마나 쉽게 한 말을 뒤집는가를 생각해보면, 이 이름에는 정말이지 인간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 담겨있다.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어김없이 독일 속담 하나가 같이 떠오른다. ‘Ein Mann, ein Wort’—엄숙하게 번역하면 ‘남아일언 중전굴’ 일 테지만 원어는 그냥 ‘한 사람, 한 말’이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 짧은 한 마디는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첫 덕목을 상기시킨다. 사람 말이 오락가락하고, 더더구나 유불리에 따라 뒤집혀서는 안 된다는 엄청난 경고를 속담도 ‘파우스트’도—쉽고도 재미있게 —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속담에 따르면 말을 바꾸는 것은 사람으로서 못할/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괴테에 따르면 악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존재의 교연영색이 매력적으로 보이니 우리 속에 있다는 그 성분은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가. 한 입으로 두말만 하지 않아도 세상은 얼마나 좋아질까.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의료칼럼



정명호
국립심뇌혈관센터 추진위원장
광주보훈병원 순환기내과 부장

우리나라 성인 사망률 1위는 암이고 심장질환이 2위, 뇌혈관질환이 3위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암은 우리 몸의 전체 장기를 포함한 것이고 단일 장기 질환 으로서는 심장질환이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며,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전 세계 사망원인 1위는 심장질환이라고 매년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국립암센터는 일산에 2000년에 설립되었지만, 심뇌혈관센터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필자가 2007년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광주 R&D 특구 제 3 지구)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되었고 국립심뇌혈관센터는 최초 계획과는 달리 국립심뇌혈관연구소로 규모가 축소돼 설계도가 완성되어 조만간 착공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계획보다 늦게 진행되고 있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를 반드시 착공하고 계획대로 연구병원 및 중개연구센터를 포함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절

국립심뇌혈관센터의 미래를 위한 건의

실하다고 건의를 해왔다.

장성군에서는 2010년부터 2회의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3500억원 규모로 500병상의 연구병원, 기초 및 중개 연구센터, 재활센터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2018년 1차 연구용역, 2019년 전문가 공청회, 2020년 2차 연구용역 및 현장답사를 거쳐서 500병상의 연구 및 진료 병원, 기초 및 중개 연구센터, 정책센터 등으로 3500억 원의 예산을 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도 53.3%의 전문가들이 연구소 단독 설립보다는 연구병원 설립을 제안했다.

만약 연구소만 단독 설립하였을 때 국가 지원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병원이 동시에 설립돼 중개 및 임상 연구 실행으로 연구 수익을 창출하여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필자는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는 중개 및 임상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연구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평가 시마다 역설해 왔다.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의 심뇌혈관센터에서도 연구병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단독 연구소를 설립하였던 해외 사례에서는 모두 실패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정권에서는 보건복지부 관할에서 질병관리청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으로 관할 산업 클러스터가 컸으며, 심뇌혈관연구소로 축소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관할 부서를 국립암센터처럼 국립심뇌혈관센터도 보건복지부 산하의 직할 센터로 해 줄 것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장성군에서는 김한중 군수의 주도하에 국립심뇌혈관센터에 연구병원 설립을 위하여 추가 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있으며, 호남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장석주, 이동원 교수와 광주전남미래비전 위원회에서는 문승현 위원장(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과 이재석 교수도 국립심뇌혈관센터의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장성군에서도 향우회 회장인 고정주 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장성군민들도 후원해 주고 있다.

지방 선거 이전에 광주시와 전라남도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올해에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를 반드시 착공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병원 및 중개연구센터와 의료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 줄것을 부탁드린다. 특히, 국립심뇌혈관센터 직원들을 위한 거주,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 정주 여건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국민주권정부에서 조기에 착공하여 국립심뇌혈관 연구소와 연구병원이 설립돼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심뇌혈관센터가 호남에 설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립심뇌혈관센터의 호남 건립을 통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과 한강 자가의 노벨문학상 뒤를 이어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호남에서 배출되기를 기원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택’ 아닌 ‘시대적 사명’

어서 광주·전남 양 사·도가 실질적 지역 대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출범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도민의 70%가 행정 통합에 찬성한다고 했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새로운 시대의 대도약과 찬란한 대부흥의 결실을 맺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미래 산업의 유기적 융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기회의 땅’이 열릴 것이다. 광주의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및 우주항공 역량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호남권 미래 경제 생태계’가 기대된다. 정부가 약속한 국가 전략 산업 클러스터가 통합된 경제권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우리 지역은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글로벌 대기업 유치를 가속화해 우리 청년들이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이곳에서 꿈을 펼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탄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행정 효율화와 강력한 자치권 확립을 통해 사·도민의 삶의 질을 혁신할 것이다. 320만명을 상회하는 거대 ‘메가시티’ 규모에 걸맞은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자치 권한이 주어질 것이다. 이는 중앙의 처분권 바라보던 수동적인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스스로 대형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 분권의 시대를 여는 기초가 될 것이다. 또 경제 지

점에서 낭비되었던 중복 투자를 과감히 제거하고 광역 교통망과 복지·문화 서비스를 하나의 계획 아래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사·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수도권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셋째,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축이 세워질 것이다.

지역 단위의 이해관계에 국한된 개별적인 정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 대응에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뭉쳐 ‘호남권 메가시티’라는 강력한 엔진을 가동할 때 비로소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단순히 두 지역의 물리적 합치를 넘어 호남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하여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위대한 여정이 될 것이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과거의 지도를 이어 붙이는 복원 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하는 창조적 설계다. 40년의 간극을 메우고 하나의 강력한 지방정부로 거듭나는 길은 우리 세대가 후손들에게 변영의 자부심을 되돌려주는 역사적 소명이다.

중앙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와 지역 정치권의 결단, 그리고 사·도민의 간절한 열망이 결집된 지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320만 사·도민과 함께 열어가 새로운 천년, 광주·전남 대통합의 위대한 장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社說

주민 복지 혜택 높이는 ‘행정통합’ 고려해야

광주·전남 행정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주민 복지 증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엇그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는 각각 차담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에 따른 주민 권익보호 방안과 지역 균형발전 청사진을 발표했다. 자칫 행정 통합논의과정에서 시도민이 우려하는 복지혜택 축소나 세금 인상 등의 불이익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통합 논의의 핵심 전제로 ‘불이익 배제 원칙’을 내세우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안에 주민 보호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종전의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주민 부담(중세)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통합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계기로 획기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시도민에게 돌아갈 ‘통합 혜택’이 기대 이상일 것임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통합 이후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광주권, 목포무안권, 순천여수광양권 등 3대 축에 미래 산업을 고루 배치하는 ‘산업 균형 배치’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또한 두 단계장 모두 통합이후에도 공식사회의 무리한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광주·전남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물리적 결합에 그친다면, 전국 최하위권의 재정자립도를 지닌 ‘가난한 양시도가 살림을 합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광주·전남 통합이 산업·경제·문화를 아우르는 초광역 메가시티로 부상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와 혜택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침체한 광주·전남 경제 올해는 좀 나아지려나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광주·전남 경제에 새해 들어 모처럼 긍정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반등했고, 지역 제조기업들 사이에서도 “올해는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수치상으론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앞이 보이지 않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분명 한 변화다.

주택시장을 보면 광주와 전남의 입주전망지수는 한 달 새 두 자릿수 상승했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금융 여건 완화 기대가 맞물리며 사업자들의 심리가 다소 누그러진 결과다. 지난해 말 전국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반등했다는 점은 상징성이 작지 않다. 주택시장은 기대 심리가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제조업 현장에서도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나온다. 광주·전남 제조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경기 흐름이 전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다수 기업은 공격적 확장보다는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환율, 원자재 가격 변동성, 통상환경 불안 등 대외 변수에 대한 경계가 여전히 있다는 뜻이다.

주택시장 역시 안심하긴 이르다. 아파트 입주율은 여전히 낮고, 잔금 대출 부담과 기존 주택 매각 지연 등 구조적 문제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연초부터 나타난 지표들이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분부 낙관도, 과도한 비판도 아니다. 연초에 포착된 긍정의 신호가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 실질 회복의 출발점이 될지는 결국 올 상반기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이제 막 살아가기 시작한 광주·전남의 기대 심리가 다시 꺾이지 않도록 주택·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지역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실행해야 한다.

無等鼓

잡지 ‘샘터’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최인호의 자전소설 ‘가쪽’이다. 무려 34년간 연재된 소설에 등장하는 작가의 딸 다혜와 아들 도단이는 독자들과 함께 나이를 먹었다. 네 명의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를 읽다보면 내가 마치 도단이에 옆집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었다. 많은 이들의 추억과 함께 해온 국내 최장수 교양지 월간 ‘샘터’가 2026년 1월호(통권 671호)로 휴간한다는 소식이다. 앞서 2019년 휴간을 결정할 당시에는 독자의 기부와 기업 후원 등으로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 6년 만에 휴간이

아마도 수많은 독자들의 인생 한 페이지를 장식할 근사한 추억이 됐을 것이다.

장간 당시 ‘샘터’의 정가는 100원. 서울 왕복 버스비가 10원이었던 시절이었다. 세월이 흘러, 휴간 소식을 듣고 구입한 ‘샘터’ 마지막호의 정가는 4900원이었다. 표지는 창간호와 똑같은 고흐의 정물 그림이고, 첫 특집 주제였던 ‘젊음을 아끼지’는 이번호에 이해진 수녀, 철학자 김형식, 정호승 시인이 참여한 특별 기획으로 꾸려졌다. 엄마가 즐겨 쓰던 빈 커피잔을 보며 눈물 짓고, 뜨개질을 하며 행복 한 나날을 보내고, 퇴근길마다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행법만’ 사

‘샘터’ 휴간

1970년 4월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창간한 ‘샘터’는 한 때 50만부 넘게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누리던 국민잡지였다. 16년간 독자들을 만난 법정스님의 ‘산반한담’을 비롯해 정채봉 동화작가, 피천득 수필가, 장영희 교수 등이 지면을 빛냈고 정호승 시인과 한강 소설가는 샘터 편집부 기자로 일하기도 했다.

샘터는 무엇보다 눈물과 웃음이 담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 55년간 잡지에 실린 1만 1000여편의 글은

람들의 글은 마지막호에도 여전히 실렸다. 인터넷과 AI가 등장하고 영상문화가 대세가 되면서 ‘ 종이잡지’가 사라지는 시대다. 폐간이라는 말 대신, 휴간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샘터’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건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잡지를 곁에 두니 소중한 친구를 떠나보내는 듯해 쓸쓸한 마음이 들면서도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켜준 고마움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